

세월호 이후 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준 6.4 지방선거 - 여권이 겨우 참패를 모면한 지방선거, 진보후보 단일화로 승리한 교육감선거 -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겨우 참패를 모면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월등히 높던 여당 지지율은 폭락했고, 결국 야권 득표수보다 적게 나왔다. 핵심이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은 완전히 패배했고 보수의 아성인 대구와 부산에서도 표를 많이 뺏겼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사기극, 철도, 의료 민영화, 불통의 정치와 막가파식 인선에 불만이 높아지던 중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더욱 키웠다. 국민들은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사회의 우선순위에 대해 되묻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항의 운동이 큰 규모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서가 투표에 반영된 것이다.

한계도 있었다. 항의 정서를 반영할만한 정당이나 후보가 마땅치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사이익을 얻긴 했지만 새정권을 대안으로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남경필과 김진표 둘 다 한미FTA를 추진한 이력이 있어 변별력이 없었던 탓에 무효표가 대량 나오기도 했다.

진보정당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진보정당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4명을 배출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전무, 광역의원도 32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기초의원도 161명에서 51명으로 감소했다. 통합진보당 탄압, 진보정당 분열의 영향이 컸는데, 이는 진보정당 재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후보를 단일화한 교육감 선거에서 17곳 중 13곳에서 진보후보가 당선하여 압승한 것은 이번 선거의 최대 성과다. 그동안 진보교육감이 이룬 성과에 공감한 유권자들

이 많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 까닭도 크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교육감 선거 결과는 큰 자신감을 줬다. 진보 후보들은 대체로 정책 협약 등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약속했다. 이전에도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기대할 만 하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이 앞장서 진보교육감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이윤보다 인간'을 우선순위로 다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호봉제 생취!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방중생활대책 마련 촉구!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

2014년 7월 30일(수) 오후 1시 세종시 교육부 앞

교육부는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하고 방중생활대책 마련하라!
제대로 된 호봉제를 실시하라!

※ 과학직종 사전대회 오전 11시 30분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작년대비 7.1%인상

-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문제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보다 370원, 7.1% 오른 것으로 작년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한 6,700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액수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조차 보장할 수 없는 금액이다.

올해도 여성노동자들은 전국적인 최저임금 캠페인과 1인 시위, 최저임금위원회 앞 집중집회, 밤샘 농성 등을 이어가며 최저임금 현실화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하다 고작 35원 인상을 고수했고, 정부는 모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만 맡겨놓은 채 방관했다. 이 때문에 35원 인상안을 두고 누리꾼들도 "고작 삼각김밥 2개 값 올려준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370원 인상안조차 못마땅해하며 전원 퇴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흐름이 거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최임위 뒤에 숨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을 파기했다는 것이 더욱 분노스럽다.

최저임금 현실화 집회에서도 노동자들은 "공짜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은 정당한 댓가도 아닌 최저선을 명시할 뿐이다. 그런데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률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숫자놀음에만 맡겨놓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정부의 책임방기다. 이번 아쉬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및 저임금 노동자 입장에 선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88CC 복지 경기보조원들, 고등법원 강제조정안에 뿔났다

지난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가 '88회사는 조합원 41명에게 해고 기간(5년 5개월) 동안 1인당 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1심 수원지방법원에서 '해고된 경기보조원이 다른 직장을 취업할 수 있는 시기를 6개월 정도면 될 것이라며 판결한 금액'이다. 더욱이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회사에 유리하도록 1심 판결 금액에서 판결 후 지금까지 발생한 법정이자까지 빼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조합원들은 강제조정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였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고등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친기업적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아무리 경기보조원이 법적지위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5년 5개월 일 못한 기간 동안 1인당 900여만원 지급이 말이 되는가?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억원이 훨씬 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타사업장에 취업할 기간 위로금 몇 푼 주면 된다는 말인가.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에 대해서 정당한 댓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8년 친기업의 정부가 들어 서자마자 회사 매각을 위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2008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회사는 조합원 55명과 간부 5명을 집단으로 제명(해고)과 출장유보라는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 해고된 경기보조원들은 회사와 여의도 보훈처에서 집회를 하는 등 원직복직을 외치며 투쟁해왔다. 회사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피하여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2월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판결과 출장유보는 부당징계이고 간부 4명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징계자들은 회사에 원직 복직하여 일하고 있고 해고기간 임금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지금도 법원을 오가며 법적투쟁을 하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투쟁이다.

총 9개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판부에 따라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는 판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이어졌다.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판결에 우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울고 웃어야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조합원들은 당당하게 업무복귀를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제일 맘에 걸리고 아파했던 것이 제명되고서 함께 복귀하지 못하는 간부들을 두고 복직하는 것이었다. 5년 5개월 동안 기나긴 투쟁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고 원직 복직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다. 현장으로 돌아가 일하면서 그동안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가시면서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조합원들이 더욱 보고 싶어진다.

- 88CC분회 김경숙 조합원

다. 최저임금 투쟁의 열기는 6월 26일 세종시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인상' 집회까지 이어져 많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 경기 | ○○고 급식실 초과수당 2.5배 받아내다



6월 17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실무직원 연수'에서 지부는 여성노조홍보활동을 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자율학습 때문에 석식을 한다. 미가입된 급식실무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석식준비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 2.5배를 요구하며 학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시기에 개교한 타 학교에서 초과수당을 2.5배 받을 경우 지급하기로' 1차 간담회에 합의 했다. 노조와 학교가 타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고도 5월부터 지급하기로 결정 하였다. 여성노조 조합원이 많은 안산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중 한 학교만 제외하고 모두 초과수당 2.5배를 받는다.

학교는 '노조가 교육청과 교섭하기 때문에 학교는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하며 교섭을 거부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단합된 행동으로 받아낸 것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노조와 함께 요구하며 받아낸 값진 성과이다.

| 전북 | 급식조합원들에게 선물배달, 그리고 '투표 인증샷' 선물배달



지부 급식지회가 조합원 복지 차원에서 개인별 '스트레칭기' 선물을 제작 했다. 선물을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더니 노동조합에 대한 소속감을 줄 뿐 아니라 다른 노조와 차별성을 가지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됐다.

소소한 '스트레칭기'지만 지부에서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전달을 한 결과 선물보다는 노동조합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방문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조합원들이 전해왔다. 이러한 관심들이 소문이 나면서 익산지역 조합원들이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6.4지방선거 투표참여 독려 차원에서 '투표 인증샷'을 카페나 밴드에 올리면 책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율도 높여냈다.

| 서울 | '민들레 장학금' 그 뜻 오래되길



5월 22일 서강대분회는 '민들레 장학금' 전달식을 했다. 행복이라는 꽃말을 지닌 민들레처럼 분회와 학생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장학금 전달 행사가 벌써 5년째다. 올해 장학금은 사회학과와 수학과 학생 2명, 분회 조합원 자녀에게 수여했다. 몇 년 전 분회의 장학금 전달 소식을 듣고 서강대 졸업생이 좋은 취지에 동참하겠다고 분회 조합원 자녀에게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을 보내왔고 그 뒤로 서강대 학생뿐 아니라 분회 자녀에게도 수여하게 됐다. 전달식 내내 조합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은 소감을 말하다 울컥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받는 기쁨과 나누는 행복으로 자리매김한 서강

대분회 '민들레 장학금'이 앞으로도 그 뜻 변하지 않고 오래되길 바란다.

| 인천 | 2015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 힘차게 전개



지부는 어느해 보다 힘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했다. 5월 19일 인천 경충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21일, 6월 5일, 6월 24일 총 3회에 걸쳐 주안역 일대에서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분회 임원과 조합원들 중심으로 진행된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전단지를 보고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왔고 즉석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이 진행 되는 등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

| 광주전남 | 조합원 교육 실시



지부는 광주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은 이후 근무 시간에 최초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2014년도 2/4분기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센터 소강당에서 5월 30일, 6월 2일, 6월 3일 3차례였다.

5월 19일 광주시교육청 공문 '2014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안 설명 및 향후 학교비정규직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각 직종별 요구사항 수렴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5월 26일 광주시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나이스에 '기타 - 조합활동'으로 당당히 내고 5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다음 조합원 교육은 9월에 있을 예정이다.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경남 | 경상남도교육감직 인수위 비정규직 T/F팀 협의회 진행



지부와 경상남도교육감직 인수위 비정규직 T/F팀 협의회가 6월말 4차례 진행됐으며 당선인과의 간담회도 1차례 진행됐다.

박중훈 교육감 당선인은 '학교비정규직을 학교내 교육공동체로 인정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학교비정규직 T/F팀을 별도로 편성하고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노사 관계가 아닌 협의관계에서 교육감공약이행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빠른 시간안에 단체교섭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도 밝혔다. 7월 2일 취임이후엔 지지부진하던 경상남도교육청과의 원활한 교섭을 기대해 본다. 또한 경남교육이 혁신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학교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 대구경북 | 뜨겁게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여성 노동자 행동의'

| 상남 | 계약만료 1주일 전 구두로 근로계약 만료통보 받은 조합원 부당해고 승소판결

○○교육지원청 기록전산원 A조합원 부당해고 사례입니다. 7년간 A조합원은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합니다. 7년째 근로계약서에 ○○교육지원청은 '한시적 사업'이라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A조합원에게는 근로계약 내용변경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그 후 계약만료 1주일 전에 ○○교육지원청은 구두로 A조합원에게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합니다. 해고 통보인 겁니다. 부당한 무기계약자 해고임을 주장하며 A조합원은 여성노조와 함께 ○○교육지원청 면담을 진행합니다. '사업종료'라면 인력풀에 올려 재배치 요구도 하며 몇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교육지원청은 '자동계약 종료'라고만 일관합니다.

노무사의 도움으로 A조합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을 인정하는 부당해고 판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A조합원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노위 부당해고 승소판결 이후 여성노조와 A조합원은 ○○교육지원청과 면담을 진행해 원직복직관련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해고 기간 임금지급 / ○○교육지원청 무기계약직으로 복귀 / 현실적으로 기록물사업 종료로 기록전산원으로 원직복직이 어려우니 행정·교무실무사 충원시 우선 배치 / 배치 전 당사자 희망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근무 가능'입니다. 현재 A조합원은 ○○학교 교무실무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참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날'을 주제로 6월 18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2·28 공원에서 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모였다. 지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의 주최로 약 10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하여 진행했다.

참석자 중 경북대 생활관 분회의 여성 노동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사, 장애인 연대 노동자가 나와서 현장 근무의 고충과 최저 임금이 인상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언했다. 특히 경북대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조합원이 "최저 임금 인상은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일은 소갈이 하고 몸은 망가져서 매일 병원에 살다시피 합니다. 시급이 하루 병원비도 되지 못합니다. 2015년은 최저임금 대폭 올려서 사람답게 살아 봅시다"라는 발언을 할 때는 집회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6,700원 이상의 인상 및 생활임금 쟁취를 위하여 투쟁을 계속 할 것을 다짐하며 집회를 마무리 했다.

목원대분회가 지난 5월 8일 단체교섭 조인식을 통해 5개월 동안의 긴 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섭은 원청과의 도급계약 동결로 그리 쉽지않은 않았다. 하지만 조합원 전체가 합심하여 논의, 결정하고 힘도 팍팍 실어주었고 교섭위원들도 이런 조합원들에 힘입어 교섭이 진행되는 내내 목소리에 힘주어 열심히 교섭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번 교섭은 복지지원금 대폭 인상과 병가 확대 신설 등 지금까지의 것을 훌쩍 뛰어넘는 큰 성과가 있었다. 5월 20일에는 전체 조합원들과 교섭보고대회를 통해 그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보고대회는 '이겼다, 해냈다'는 기쁨에 떡과 고기, 과일 등 갖가지 음식들에 대한 높은 만족도까지 웃음이 그치지 않는 시간들이었다.

| 울산 | 9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 지방공무원과 근무시간 동일적용 시행 논의 중

그동안 울산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은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제각각이며, 형편성 논란을 여러번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여성노조 울산지부를 비롯한 울산학비연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자'라고 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본 교섭 내용에서 다뤄질 근무시간 동일 적용이 9월 1일자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힘이 모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 대전충청 | 목원대분회 단체교섭 조인식



학교비정규직 임금 교섭 7월부터 시작하자!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단체협약 체결 의지는 있는가?

지난 6월 27일, 제35차 교육부 교섭(실무협의, 직종협의)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말 상견례를 시작으로 1년 넘게 교육부 교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재정이 없다, 학교장 재량이다'는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진전이 없다. 교육부는 단체협약 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역교육청은 현재 6개 교육청(전북, 강원, 경기, 전남, 광주, 서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11개 교육청이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교육감 선거로 인해 중단됐다. 그러나 6.4지방선거 결과 13개 지역교육청(서울, 강원,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제주, 세종)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담긴 단체협약 체결에 기대가 된다.

교육부는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하고 방증생활대책 마련해야 한다

2013년 투쟁의 성과로 2014년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기간 1년당 2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전 해에 비하면 오른 것이지만 여전히 정규직의 년격차 1/4에 해당하

는 금액이며,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동일 금액으로 지급하는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 정규직과 차별은 심각하다. 또한 월급제 시행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중에 턱없이 적은 임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다. 진정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의지가 있다면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방학중 생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제대로 된 호봉제를 위하여 투쟁하자

2015년 임금교섭은 7월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는 7월, 지역교육청은 9월에 예산을 수립한다. 우리는 2001년부터 투쟁하면서 투쟁하는 만큼 처우개선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같은 교육계에서 일하면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학교비정규직은 근속과 무관하게 기본급이 똑같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장기근무가산금만 정규직의 1/4만큼 인상하고 아주 많이 개선한 것처럼 말하는 교육부에 강력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근속에 따라 기본급이 다른 제대로 된 호봉제를 쟁취하자.

조함원 참여마당 | 여당의 텃밭 경남에서 알찬 진보교육감을 희망하며

지금까지 선거를 바라 볼 때면 "아이구~ 저 사람들은 정치가 뭐가 그리 좋아서 저러고 다닐까?"라는 말로 일축하며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안 썼다.

그러나 이번 선거 기간에 후보자들을 보는 나의 시각은 좀 달라졌다.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나오면 공약이 진심인지 가능성은 있는 건지 의심도 해보고, 다 그렇고 그런 후보들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은 누굴까 고민도 해보는 등 나름대로 생각과 고민도 많았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전문상담사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육감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의 교육감이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승리에 당황하고 많이 놀랐다. '세월호'사건이 진보교육감을 대거 당선시키는데 큰 몫으로 작용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부터 선거에 관심을 가졌던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교육혁신과 소통을 얘기하는 만큼 4년 임기동안 교육현장이 혁신되길 바라며, 교육공동체와 여당의원들과도 소통해서 경남교육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길 희망하고 희망하며 전문상담사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고 싶다.

학교현장에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폭력, 자살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등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상담사들이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상담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전문상담사는 처우개선 계획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당선된 박종훈 교육감은 인수위 학교비정규직 T/F팀 협의회를 통해 교육감공약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여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통하려 노력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첫 단추를 꿴 그 마음 변치 않길 진심으로 희망으로 기대한다.

- 경남지부 전문상담사 박○○



5월 28일 본조 회의실에서 '여성노동자 힘 키우기 리더쉽 교육'으로 여성노조 지부선전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했다. 서울, 경기,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 상근자들이 참가해 '노보 기사 글쓰기', '한글 프로그램으로 소식지 만들기', '구글로 설문조사하기' 교육을 받았다. 지부선전 담당자 교육생들은 '지속적인(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선전 홍보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3.8은 세계 여성의 날! 7월엔 여성주간(7월 1일~7일)이 있습니다!

7월 1일~7일은 바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주간'입니다.
※ 여성주간은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정.

“만남·소통·힐링” 2014 전국여성노동조합 언니캠프

일시 : 2014년 7월 11일(금)~12일(토)
장소 : 태안 만리포수련원(<http://www.malipo.co.kr>)

